

제 1 교시

국어 영역

머리를 비우고 정독합니다.
정독만으로도 그 동안의 공부가 복습이 되고
복잡했던 머리가 정리가 되고
시험장에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실전 심상훈련.

수능 국어는 '새로운'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재조직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평가원 교수님들의 견해는
출제 원칙으로 확립되어 일관되게 공문서를 통해 안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노력보다는
다른 노력이 더 큰 매출을 만들어 주는 시장의 특성상

이에, 국어 과목은
'해도 성적 유지'
'안 해도 성적 유지'인 과목으로 전략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학습 방향을 통해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전문성 있게
실력을 갖춘 강사로 성장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배인호 초격차 국어 리허설 ; 심상훈련

- 순서 1. 한 장 파이널 정독
- 정규반 학생들은 그 효용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 정규반 vs 배포용 버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 2. 실전 상황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하며 따라오기.

8시 입실

8시~8시 10분

- 착석 후 한 장 파이널 정독
- 실전 리허설 정독
- 이미지 트레이닝 시작
- 필요시 예열(warm up)지문 준비
- 예열지문은 기존에 풀어 본 지문도 좋고, 가급적 평가원 기출로 05~22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도, 예열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지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8시 10분~8시 30분

- 교실로 선생님 입실
- 학생 개인 짐 통제
- 수험 응시 유의사항 통제
- *머릿 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심상훈련 지속)

8시 30분~8시 40분

- 시험지와 답안지 배포

8시 40분~

- 시험 시작
- 40만 수험생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당신의 무기

공통영역 순서

1페이지 독서 이론

2페이지 독서 (가)(나) 상호텍스트성

3페이지 독서 평이~준킬러

4페이지 독서 준킬러~킬러

올해 수능은 25%의 확률로

2페이지 독서 법률 (가)(나)상호텍스트성 지문 (논리/철학 위 일 수 있음. 10월 학평, 작년 수능 참조)

3페이지 과학기술(구조는 10월 학평, 소재는 작년~올해 평 가원 참조)

4페이지 경제 출제 예측(18~20호름+작년 올해 ebs)

*모두 43주차 수업 및 원론서 참조

시간 배분은

1페이지 5분 이내

2페이지 10(8~12)분 이내

3페이지 8(6~10)분 이내

4페이지 12(10~14)분 이내

계 : 35분

단, 올해 6,9 기준으로는 시간 소폭 감소 필요

단, 평년 기준으로는 위의 시간이 적정

아래의 순서는 바뀔 수 있음.

비평 출제 확률 50% 이상.

5th 서정 장르

6th 서사 장르

7th 고전 시가

8th 서사 or 장르복합

시간 배분은

지문 당 7(6~8)분 내외

단, 올해 6,9 기준으로 시간 소폭 증가 가능

단, 평년 기준 시간 소폭 감소 필요

계 : 25분

실전에서는

1. 누구라도 압박을 느끼고
2. 망가진 품을 바로 잡고 탈 압박하기 위해서는
3. 영원한 클래스, 평가원의 정보처리 공식 = 한 장 파이널
- 4.

그렇게 네 백분위는 100에 수렴하고,

목표한 최저등급은 가뿐히 넘긴다.

선택 화작

선택 언매

선택

총 15분 이내

독서 : 35분

문학 : 25분

선택 : 15분

마킹 및 예비시간 : 5분

총 80분

*시간은 개인에 따라 변경 가능

다시, 영역별 리허설 시작

풀이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1번~45번 풀이 흐름으로

17~22 기출 흐름을 바탕으로

22 선택 수능 유형을 고려하여 배치

예열 지문활용 가능.

1페이지 독서 이론처럼. 우리도 예열부터...

출제의도 : 예열 + 독서-정보처리 이론 확립

=> 화작 원론 및 정보처리 구조 연습이

독서 정보처리의 기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됨

화작 선택자는 물론,

미 선택자 역시 다음의 문제와 사고 흐름은 꼭 따라 갈 것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문제은행식 출제에서, 아래의 지문 소재는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 시간 재며
- 2. 지문 처리 = 구조 + 내용 처리
- 3. 구조도 그리기
- 4. 정답 처리 랩타임 체크 후
- 5. 원론서 정독
- 6. 자신의 교정 포인트 및 실천 행동 원칙 확립한다.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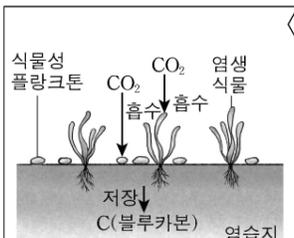
㉠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01~03] 정보전달의 화법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월 평가원)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 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견해를 화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선지 자체가 내용이 아닌 **구조**로 출제됨.
 따라서, 지문 정보처리를 구조로 좌측 여백에 필기로 처리해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존 수험생의 사고 흐름

- ① 지문은 이미 내용으로 처리
- ② 하지만, 선지는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즉각 판단이 안 됨.
 ∴ 선지에 들어가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 + 지문 **내용**
 ⇔ 선지 **내용** 매칭시킴
 운이 좋게, 판단이 되면 모르겠으나,
 특히, 수능 당일의 신중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단어, 조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의도/설계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결과, 뭔가 fit하게 들어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음.
- ③ 신중한 성격일수록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로 다시가는 과정의 반복 ∝ 시간지연 ∝ 정보처리 복잡성 ∝ 때때로 혼란 가중 ∝

하지만, 화작문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 설계대로 접근하면?

1.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화작문 정보처리Formula>

- ① 독서 **구조처리** + 쉬운 내용
- ② 1st 문항은 **주제+전개방식(구조)** 묻는 설계
- ③ 2nd ~ 3rd 문항 역시 결국 **주제+구조**
- ④ **매체, 특히 (괄호) 주의**

위와 같은 정보 처리 공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 풀이 흐름이 생긴다.

첫째, 학습자가 알 수밖에 없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의 화작문 '내용'과 '구조'가 제시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소비가 줄어든다.

단, 이 부분에서 화작문 시간 지연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습관(routine)의 문제이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속 발음, 어휘력 부족, 배경지식 부족, 상향식 독서 및 하향식 독서 모형 과정에서 협응 부족으로 인한 정보처리의 다의성, 난해성이 발생하며, 피로도 누적과 시간지연이 생긴다. 해법은,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하기엔 현실성이 없고, 지금 이 시점, 남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복습'이다. 그래서 그렇게나 수업시간에 복습을 강조하고, 복습 설계를 진행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리허설 교재, 작년 22예비평가, 작년 수능, 작년 6/9 및 올해 6,9월을 복습을 진행한다. 배운대로, 구조와 내용, 정보가치 판단 하다보면 느낄 것이다. 시간이 줄어드는 구나. 물론, 마지막에 1~2회 정도의 실전연습으로 생소한 지문으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첫째, 습관 및 내공 부족으로 인한 정보 처리 속도의 지연 문제는 올해 6/9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해결한다.

둘째, 독서/문학 일부 문항 및 화작 선지에서, 판단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의 정보처리 형태는 '구조'에 대한 것이다. 지문을 이미 '구조'로 처리했다면 fit이 딱 들어맞는다. 아니라면, 발췌 독을 세부 내용이 아닌, 주제 구조 정리에 더 집중하라. 결과적으로 시간지연, 주저함, 피로도, 실수... 모든 부분에서 이득.

셋째, 신유형도 결국은 주제+구조로 집중하면 출제자의 의도와 설계가 보인다.

(배운대로, 다시 한 번 이 지문의 시간 재며 평가원 정보처리 공식 적용 후 우측의 필기와 비교할 것. 또한 연습이 더 필요한 경우를 위한 추가 문항 및 해설 역시 교재 마지막에서 다시 제공.)

2021-6월[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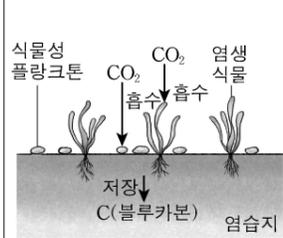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2021-6月[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안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연안 생태계는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구조 = 정답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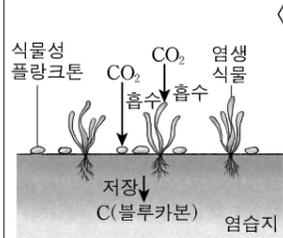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대체X => S1+S2+S3 역시 구조=정답설계!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자.
- 주제+구조 = 정답설계**

1페이지 독서 이론의 출제 배경과 설계

출제의도 : 예열 + 독서-정보처리 이론 확립
평가원의 mind set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22학년도 6월 평가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1. 구조 처리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

2. 발췌독 역시도, 가치 판단 바탕 주제 처리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

3. 구조도 그리래요

우리는 매주, 총 45주의 수업을 통해 매 순간
겪고, 느끼고, 깨닫고, 100%의 확률로
연역적, 귀납적 논리로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쯤되면, 우리 수강생들, 40만 수험생의 최상의 포식자.
맞죠?

쭈구리 시절



배인호 초격차 국어



수강 후 지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지 않았다면,
나는 더 멀리 보지 못했을 것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지 않았다면,
= 선현의 토대 위에서

나는 더 멀리 보지 못했을 것이다.
= 나는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수강생, 혹은 자료 활용 학습자에게 최적화 되어 있으나,

핵심을 정리한만큼, 시간 없이 파이널 과정에 선택하여 합류한 학생들도 고민하며 정독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이에 따른 질문/상담은 언제든지, 얼마든 가능합니다.

드루와요. 드루와.

2페이지 독서 (가)(나) 상호텍스트성

3페이지 독서 평이~준킬러

4페이지 독서 준킬러~킬러

5th 서정 장르

6th 서사 장르

7th 고전 시가

8th 서사 or 장르복합

선택 화작

선택 언매

시작합니다.

2페이지 독서 (가)(나) 상호텍스트성

예상되는 것은,
법/철학/논리 지문의 위의 구성.
따라서 다음의 지문들에 주목합니다.

- 21수능 법
 - + 22 9월 논리
 - + 22 10월 교육청 (가)(나)
- 넣어주세요.



수능에 나올 확률.
4년 중 1회 이상 출제 예상됩니다.

- 또는?
- 21-6월 디지털세
 - + 21-9월 행정입법
 - + 22-9월 과학기술
- 넣어주세요



수능에 나올 확률.
4년 중 1회 이상 출제 예상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 리허설 자료는
최종보스부터 때려잡습니다.

3페이지 독서 평이~준킬러

예상되는 것은, 과학기술이고, 확률적으로는 평이~준킬러의 확률이 높는데 개인적인 직감으로는 매우 킬러 지문으로 예상됩니다. ebs 출제된 라이다 센서 + 이미지센서 + 자율주행, 빅데이터 정보 처리, 데이터 마이닝, 머신 러닝, 17기출 퍼셉트론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역시 평가원 기출 있음)이 엮여, 코인-인플레-통화량과 같은 경제-과학기술 복합 출제 가능. 이는 마지막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연습에 좋은 레벨업 지문과 공략법만 알면 순삭 지문으로 다루겠습니다.

4페이지 독서 준킬러~킬러

대망의 경제 지문 예상됩니다. 이는, 수업 학습 바탕 무조건 원론서 정독입니다. 기출된 경제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한 지문 갖다 던지는 게 나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굳이 다루어야 한다면 ebs 브레튼우즈 체제로, 파이널 수업/보충 영상으로 제공될텐데, 지문난이도가 심각하여, 기출된 한계-평균 비용 곡선 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th 서정 장르

상황/분위기 => (관습적/공감적) 정서파악 = 정답확률 87% 필요한 경우 개념 발췌독도 필요하지만 확률 13%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어떤 상황일지... 그래서 어떤 감정일지... 그렇구나.. 그렇다면 정답은... 이거구나! 종결.

6th 서사 장르

초반부 인사배, 구성의 3요소 셋팅 확립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미 우리가 처리했던 정보들의 재조합일뿐입니다. 인물 - 성격, 내면심리 파악 => 사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사건 - 장면, 사건, 갈등 파악하다보면 => 서사 줄거리 파악 특이한, 소재, 배경, 서술방식에 주목 => 역시 정답 90% 이상의 확률로 보입니다. => 필요하면 발췌독이지만, 역시 위의 정보가치 높은 부분에서 판단될 확률이 90% 이상.

7th 고전 시가

전형적 of 전형적 그 시절 상상해보세요. 문맹률 99% = 글을 안다 = 공부를 했다 = 99% 유학자 유교적 가치관 총. 세속적 가치 = 관직 합격 = 관료 => 더 나가면, 권력 => 가끔씩 경기체가 = 자부심 = 힘합 절개 = 매화, 소나무, 학... 수양. 공부해야지 = 자연이 공부하기 좋지 => 자부심 = 자연친화 => 더 나가면, 자연이 아름답네 = 자연친화 => 더 나가면, 물아일체 = 자연친화 => 더 나가면, 풍류 => 자부심 효. 물론 효는 대부분, 유교적 가치관 = 총

수양, 인성, 공부 이런 거 강조

결국 정리하면,
자연 묘사, 자연 친화, 자연 예찬, 물아일체
임금님 그리워, 충, 그러다 님 사랑해,
단절 상황 힘들어, 님과 소통하고 싶어,

공부해, 세속 끊고 공부해,
수양해, 안분지족, 안빈낙도,
가끔씩 살기 힘들어, 일상 힘들어,
자연 좋아, 술 먹고 놀아, 풍류

소리나는대로 읽고,
나라면,
저 시대 왜 저런 글 썼을까 생각
아. 저런 마음이었구나... 응 정답이 요기있네

8th 서사 or 장르복합

장르복합이래봐야...
수필 = 100% 깨달음
독서 구조 기반, 단락별 이어지는 소재나 주제 흐름 잡다보면
보통은 마지막 단락에 집약
아... 이런 저런 깨달음 적었구나... 응응 정답이 요기있네

희곡, 시나리오... 그리고 소설 장르 중 일부는... 뭘 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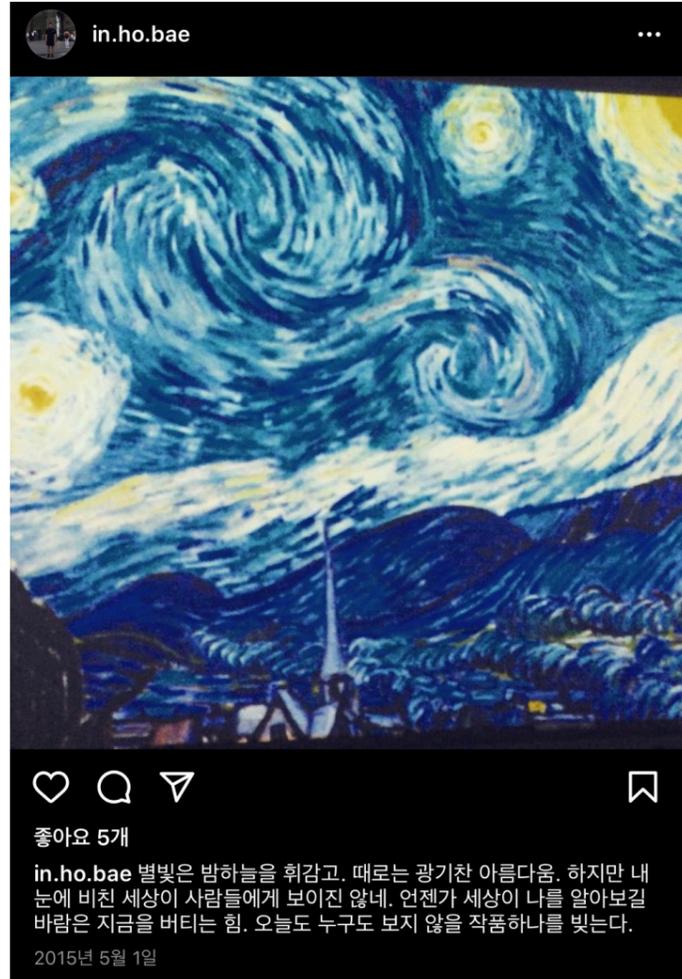
*출처 :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포스터

오징어 게임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맞아요. 영화적 상상이 있고, 상상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듯이

문학도, 소설도, 시도

문학적 상상이 있고, 작가의 그 상상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음.



모르지. 내 죽음 뒤, 201오년 오월 1일 좋아요 오개 받은 내 인스타 피드가 NFT¹⁾로 오조오억원에 거래될지도.

반 고흐는

자신이 보았던 밤하늘의 ‘인상(impressionism, 印象主義)’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위와 같은 인상주의 기법을 고안하여 표현했다.
하지만, 당시 평단은 ‘아마추어 수준. 기본적인 원근법과, 구도조차 잡지 못하는 수준’ 이라는 혹평을 했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권총 자살로 끝맺은 그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1) NFT :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Token) 멀티버스 지문, 블록체인 기술과 얽여 출제 가능성 1오% 정도 있는 소재 (15%=5년에 1번)



나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로 3차원,

그리고 불완전한 4차원만을 인식할 뿐이다.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듯

양자역학의 세계와

거시세계를 통일하는 이론은

11차원이라고 가정하면, 성립하는 초끈이론-가설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넘어를 보게 되었다.

반 고흐는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후원자인 동생과 그는 이러한 편지를 주고 받는다.

빈센트의 짧은 생.

그의 10년의 화가 생활에

그 중에서도 그가 그의 생의 에너지를 태워 그림을 남긴 기간은 딱 3년.

그의 그림은 900점.

불꽃으로 살다 간 그의 삶은

미술 역사상 가장 불행한 화가로 남았지만

현재는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다.

테오의 편지

“형은 예술가야

그것도 아주 드문 재능을 가진 예술가

그런 그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확상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돼

그러니까 나는 형을 계속 지원하겠어

언젠가 형은 반드시

후대에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될테니까

그런 예술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짓이야.”

테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가엾은 형 정말 안타까워

우리는 드디어 귀여운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왜 형은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신은 형에게 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아내도 건강하고

전에 말했듯이 형의 이름을 딴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

빈센트가 사고인지, 자살인지 모를 사건으로 인해 죽고 난 뒤

그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테오 역시, 6개월 뒤 죽게 된다.2)

2) <https://m.blog.naver.com/heasungpak/220868376320> 블로그 글. 참조하여 2021년 11월 10일 날을 샌 아침 7시 10분. 낙엽이 내 생애 가장 아름답게 물든 도곡동 연구실에서 배인호 재구성.

*김춘수 - 작품

지금,
뭔가 가슴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결국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테니.

문학교육은
당신의 삶을 움직일
그 씨앗을 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선택 화작

화작은 과거에 10문항이 출제되던 당시의 출제 흐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작 원론의 그 내용대로 계승됩니다.

선택 언매

파이널 학습 과정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이 문법인데,

기본 개념에

내신 수준의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법에서는 이슈가 없으나
킬러 1문항 및 신 유형 매체 파트에서의 어려움 호소가 많습니다.

단, 혹시나 기본개념-내신수준 유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언매 원론 정독 바랍니다.

또한, 킬러 1문항 역시 언매 원론 정독 바랍니다.

복습할수록 그 효율과 효용이 극대화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그 과목의 지위의 변동이 있고,

과거에는 화용론(화법의 기본이 되는 이론)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도 한 만큼,

매체 유형의 대부분은

화법 유형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따라서, 매체 유형 연습이 힘든 경우는
14~22 기출의 화법 유형 연습이 도움됩니다.

단, 역시나 신 유형이므로
문제부터 분석 후
지문에서 주제 구조 가치 판단을 통해
정답 사고 흐름을
구조 분석을 통해 잡아가면
역시 쉽게 정답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전체 소재 흐름을 파악합니다.

43주차, 출제 예측 특강의 정리를 마지막 이 한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국어 영역

13

분류	과학기술	법	경제	논리	철학	예술	기타	유의+ ebs/기출연계			
								원점수	표준점수		
학년도	제재						만점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017 6월	퍼셉트론 - 인공지능경망	유비 논증		음악의 아름다움		141	131 (-10)	124 (-7)	90	83 (-7)	
	과학기술 - AI - 머신러닝	논리-논증구조		예술	과학기술						
2017 9월	콘크리트와 건축물의 특성	카르노 이론과 열효율		사단법인 + 주식회사		139	130 (-9)	124 (-6)	90	83 (-7)	
	과학기술	예술	과학기술	철학 사상	논리 논증구조						법
2017 수능	논리실증 포퍼vs과인총체주의	탄수화물의 소화		공정한보험 고지의무		139	130 (-9)	124 (-6)	92	86 (-6)	
	철학 - 지식의분류	논리	과학기술		경제						법
2018 6월	수기치인	통화 정책		DNS 스푸핑		143	133 (-10)	125 (-8)	89	80 (-9)	
	유학-이기론-철학	법	경제		과학기술						
2018 9월	하이퍼 리얼리즘	고전-양 지역학	고전비고전논리		집합 의례		134	128 (-6)	123 (-5)	93	88 (-5)
	예술	과학기술	논리		종교-철학						
2018 수능	목적론	오버슈팅	정책수단특성		디지털 통신 시스템, 부호화		134	128 (-6)	123 (-5)	94	89 (-5)
	철학	논리논증	경제	행정학 - 사회과학		과학기술					
2019 6월	서양의학의 동양전래와 수용 (feat. 근대화, 과정, 동양의 가능성)	계약자유원칙과 비례원칙		LFA 키트		140	132 (-8)	125 (-7)	91	84 (-7)	
	철학	법 - 3법 - 법의 기본 원리		과학기술							
2019 9월	CDS 프리미엄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자본주의vs사회주의		129	127 (-2)	123 (-4)	97	92 (-5)	
	경제	과학기술		철학	예술						
2019 수능	법률행위	서양과 동양의 우주론 (feat. 근대화, 결과, 동양명망)		가능세계		150 만점자	132 (-18)	125 (-7)	84	78 (-6)	
	법 - 권리/의무 - 법률행위	철학	과학기술 양념 1문제		논리	148명					
2020 6월	에피쿠로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공진화		144 만점자	132 (-12)	125 (-7)	87	80 (-7)	
	철학-인간의 시작(결정vs자유)	경제		과학기술+철학양념							65명
2020 9월	미시사 연구 사료로서 역사	소유와 점유		스마트폰 위치 추정기술		139	130 (-9)	124 (-6)	90	83 (-7)	
	사회과학	논증구조	법 - 거래와 소유 개념		과학 기술						
2020 수능	전통적 인식론vs베이지주의	공진화 -이식과 레트로 바이러스		국제법-BIS 비율		140	131 (-9)	125 (-6)	91	85 (-6)	
	논리-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경제						
2021 6월	과거제 - 상호텍스트성	손떨림 보정		ICT 다국적 기업		139	132 (-7)	126 (-6)	92	85 (-7)	
	사회과학	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과학 기술
2021 9월	현대 예술론, 비평론	행정입법		방역원리		138	129 (-9)	123 (-6)	90	84 (-6)	
	예술	철학	논증구조	법	과학기술 법제변화 출.예						과학기술
2021 수능	중화사상과 동양의 자본주의	예약		3D모델링과 렌더링 CPUvsGPU		144 만점자	131 (-13)	125 (-6)	88	82 (-6)	
	상경	철학	가나	법	계약기출흐름. 출.예						과학기술
2022 6월	새먼의 과정이론 vs 재이론	베카리아의 형법원리		PCR		146 만점자	132 (-14)	125 (-7)			
	가나	철학	논리구조	법	법입법 or 헌민형3법 출.예						과학기술
2022 9월	독점시장vs완전경쟁시장	자유이지 논쟁		메타버스와 센서기술		127 만점자	124 (-3)	121 (-3)			
	상경	start-up이론.출.예	논리철학.출.예	철학	논리구조						과학기술

1페이지 독서 이론의 출제 배경과 설계

출제의도 : 예열 + 독서-정보처리 이론 확립

평가원의 mind set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1. 시간 재며
2. 지문 처리 = 구조 + 내용 처리
3. 구조도 그리기
4. 정답 처리 랩타임 체크 후
5. 원론서 정독
6. 자신의 교정 포인트 및 실전 행동 원칙 확립한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견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①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 정의 주제
- 1 구조처리
- 2 가치판단
- 3 내용 이해
- 1 사실적
- 2 추론적
- 3 비판적
- 4 적용 창의
- 상호텍스트
- 평가원 관점
- 독서의 본질
-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 3 사회적 의미
- 4 통시적 의미
-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 3 사회적 의미
- 4 통시적 의미
- 1 주관적 의미
- 2 객관적 의미
- 3 사회적 의미
- 4 통시적 의미

- 3) 신 수능, 선언적 지문으로서, 레퍼런스는
- 1 독서의 본질에 대한 정의
 - 2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독서 모형
 - 3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사고력 및 적용 창의력
 - 4 문학 뿐 아니라 독서지문에서의 상호텍스트성
 - 5 행동주의-인지주의-구성주의-사회구성주의로 이어지는
 - I. 심리학
 - II. 교육학
 - III. 교육심리학
 - IV. 뇌과학
 - V. 언어학
 - VI. 정보처리 이론 - AI - CS(computer science) 학문 영역을 Background로 함.

무엇보다, 대통령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평가원장도 아닌 일개, 심지어, 학자도 아닌 나 같은 아무개의 주장에 학생들이 흔들려서는 안 됨. 철저하게 기준은 평가원.

4) 고전 읽기 강조로도 해석 될 수 있는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구조 처리로 보면 근거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정보처리 이론인, 1 구조 처리 기반, 해당 내용의 텍스트에서의 역할은, 단지, '주제/주장인 글 읽기 방식'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에 불과함.

출제 의도 : 독서 개념

실전 : 발췌독 가능함.

하지만 언제까지 자의적 접근?

시력문제? 왜? 고3한테? 이 지문 보고도?!

1. 뒷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①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1 사실적 사고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1 구조처리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3 비판적 사고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2 가치판단

-----여기까지, 독서-정보처리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여기까지, 문학-정보처리. 정답

출제 의도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실전 : 발췌독 가능...? 그러다 오답률 top10? 45%?

2.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 봅시다. 마지막 단락의 역할

궁극적 목적... 이 아니지. 정답.

이유는?

- 1 주관적 의미 (개인 배경지식 + 새 정보=구성주의)
- 2 객관적 의미 (화자>청자)
- 3 사회적 의미 (사회적 소통)
- 4 통시적 의미 (기록으로 남아 역사성을 갖고, 인류의 자산으로 축적)

궁극적 의미는 1-4 중에 뭘까요?

근거가? 지문에 없는데요?
 누가 그렇게 풀라고 하시던가요?
 평가원?
 역시...아니겠죠? 교정합시다.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나.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연결과 전개 방법 및 글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

사실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실적

7

봐도 모르면... 틀려야죠...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제 수업 들던 학생들은 아시죠?

역시. 주제. 옳은 선지 일 수 밖에 없고.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③ 사회적 의미와 관련, 마지막 단락 +2

+2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

- ① 주관적의미
- ② 객관적의미
- ③ 사회적의미
- ④ 통시적의미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③ 사회적 의미 (사회적 소통)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마지막 단락의 주제인, 기록의 의의.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의도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전공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마주하는 누구라도 해야한다.

경험 이야기 하면서 끝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천 아니라. 경험.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성 아니라. 경험 연결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경험

그리고...

학습 경험 : 독자의 배경지식 (상향식 독서 모형)

독서활동의 의미 : 새로운 지식 (하향식 독서 모형)

즉, 상호작용식 독서모형으로, 역시 정답 선지 3번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험. 계획 L L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험-연결. 중요성 인식 L L

2페이지 독서 (가)(나) 상호텍스트성

법률 지문 출제 예측

(가)(나)형의 느낌은 22학년도 10월 학평 참조 바랍니다.

- 1. 지문 구조 및 내용 정보처리
- 2. 구조도 그리기
- 3. 문제 풀이

각 랩타임 기록하고, 시간 감각을 익힙니다.

단, 위의 시간이 1지문 가급적 20분 이내, 최대 30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 되면,

수업 영상이나 뒤의 원론 해설을 참고 합니다.

오늘은 종결자부터 끝내봅니다.

2021 수능 (만점자 151명. 아래의 지문을 100% 처리 = 전국 100등권)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 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A]

26.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	㉡
본계약상 급부	㉢	식사 제공

- | | | | |
|------------|-------------|-------------|----------|
| | ㉠ | ㉡ |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기출문제은행 = 시험범위

과거 기출이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피지컬로 전국 100등 수준의 지문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 가능한 평가원의 설계와 큰 그림을 확인해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1. 지문 구조 및 내용 정보처리

2. 구조도 그리기

3. 문제 풀이

각 랩타임 기록하고, 시간 감각을 익힙니다.

단, 위의 시간이 1지문 가급적 10분 이내, 최대 15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 되면,

수업 영상이나 뒤의 원론 해설을 참고 합니다. .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 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①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 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구조도 그리기

2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 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
- ② 내게 계속 신세만 지기가 미안하다.
- ③ 우리는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되었다.
- ④ 아이들은 배낭을 진 채 여행을 떠났다.
- ⑤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T.S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①** 헌법 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②**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A2**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P** 문제가 발생한다.

S1=T1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계약 자유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 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②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S2=T2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① 사례 / Q P : 부동산 노후 A1 S1 : 민법전 근거 임대인 건물주 A2 S2 : 계약 근거 임차인 세입자 P = T.S : 법률vs계약, 법적제재?</p>	<p>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계약지문의 흐름</p> <p>성인의 관문인 수능 수험생의 생존지식. 출제 목표</p>
<p>② 최상위 주제1. 계약자유원칙 차상위 주제1. 임의 법규 법vs계약 = 계약, 제재 X</p>	
<p>③ 차상위 주제2. 단속 법규 법vs계약 = 계약, 제재 O</p>	
<p>④ 차상위 주제3. 강행법규 법vs계약 = 계약X, 법대로 + 제재 O P 부당이득 => S 반환청구권</p>	
<p>⑤ P 반사회 비도덕 S 반환청구권 X</p>	
<p>⑥ 최상위 주제2. 비례원칙 입법목적 위하 자유 제한, 최소로</p>	

이 해설 부터는,
 자신이 지금까지 읽은 정보를 아예 백지로 만들고,
 정말 무지식 상태로 100% 수용적 자세로 처리 한 뒤
 하나의 사고 흐름-논리 확립한 뒤, 그 논리와
 그 뒤에 자신의 풀이와 비교하면,
 자신의 독서 정보처리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설 시작 : 구조도

최상위 주제는
 계약자유원칙 : 계약은 자유. 따라서, 법VS계약 = 계약 우선
 +
 비례원칙 : 하지만, 입법목적등의 목적에 따라 자유 제약 가능,
 하지만 최소한
 이를 바탕으로 구조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도입	Q : 부동산 노후 수선 의무는? A1 : 민법=집주인 vs A2 : 계약 우선												
2 ~6	최상위 주제	차상위 정보												
	원리 원칙	적용												
	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계약자유원칙</p> <table border="1"> <tr> <td></td> <td>법 vs 계약</td> <td>법적 불이익</td> </tr> <tr> <td>임의법규</td> <td>계약</td> <td>없음</td> </tr> <tr> <td>단속법규</td> <td>계약</td> <td>있음</td> </tr> <tr> <td>강행법규</td> <td>법</td> <td>있음</td> </tr> </table> <p>비례원칙</p> </div>		법 vs 계약	법적 불이익	임의법규	계약	없음	단속법규	계약	있음	강행법규	법	있음
	법 vs 계약	법적 불이익												
임의법규	계약	없음												
단속법규	계약	있음												
강행법규	법	있음												

즉, 위의 정보에 집중하면, 오히려 지문을 정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3줄 요약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틀린 것이 아니죠.

지문 정보 => 구조+가치판단 => 주제 이해 => 바로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해설 시작 : 구조도 => 정답선지 사고 흐름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정답 3번 : 주제 계약자유+비례원칙*

최상위 주제는 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 당연히 적용되죠!
 특히 단속 법규는, 계약은 인정해도, 법적 불이익이 있다
 =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자유를 제한(=법적 불이익)한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제+구조에 집중 vs 선지에 어그로 LL

최상위 주제는 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
 => 차상위 정보 2단락 소주제 + 예시

<보 기>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계약 내용 없음 = 민법 = 집주인. 법적 불이익 없음

ㄴ.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계약 내용 있음 = 계약 우선 = 세입자. 법적 불이익 없음

정답 : 2번 끝

2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정답 : 1번 끝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강행법규 = 비례원칙으로 계약자유 제한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 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정답 : 3번 주제 계약자유+비례원칙*

=> 강행법규 = 비례원칙으로 계약자유 제한 = 비례원칙 적용

해설 종결 : 지문 => 정보가치 바탕 + 주제 + 구조
=> 구조도(적절한 정보 후 처리) => 정답선지 사고 흐름
 독서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기출문제은행 = 시험범위
 이어지는 기출 흐름을 확인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랩타임 재면서

1. 지문 내용 및 구조 처리
2. 구조도 그리기
3. 정답선지 사고 흐름 잡기

[16~20] 다음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지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를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를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조도 직접 그리기
다음 페이지와 비교하기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지문 분석
수업참고

구조도 그리기
바로 갑니다.

1	주제 도입	약속 vs 계약 '법'에서의 계약
1 ~7	최상위 주제	법률행위 1. 의사표시 (조건) 2. 법률(효과) 발생 = 채권 채무 *채권에 대한 채무 이행 = 변제
3	T1 계약 예시 적용 + P	매매 계약 P - S : 사적 구제 불가
4	S 원리 적용	S : 공적 구제 실체법 : 민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P-S	(생략)
6	T2 단독행위	법률행위 1. 의사표시 (조건) = 일방 2. 법률(효과) 발생 = 계약 해제권
7	P-S	(생략)

결국 20개 내외의 중요 정보로 처리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내용 이해를 내용간의 관계 파악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수준의 정보처리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특히,
주제는 법률행위와
그 요소들의 관계는 표처리가 핵심입니다.

표처리 갑니다.

정보 후 처리
=> 표 처리

지금까지 수업으로 매일 1~2시간 가량의 과제 수행을 했거나
매일 올려드린 하루 30분 자료로 잘 따라오신 학생은
고정 1등급 바로 갑니다.

정보 후 처리 = 표 처리

T : 법률행위 (아래는 종류)	1. 의사표시 (조건)	2. 법률효과
계약	합치	아래 표 상술
단독행위	일방	
증여	합치	
유언	일방	

T : 법률행위 (아래는 종류)	1. 의사표시 (조건)	2. 법률효과		
		채권	채무	
계약	합치	매수자	채권 소유권 이전 요청	채무 대금 납부 의무
		매도자	대금 납부 요청	소유권 이전 의무
단독행위	일방	채권자	채권	채무
			계약 무효 요청 권리	
		매도자		계약 무효 수용 의무
증여	합치	증여자	채권	채무 증여 의무
		수증자	수증(증여 받을) 권리	
유언	일방	유언자	채권	채무 상속 의무
		수증자	상속 권리	

사실은 간단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계약, 단독행위, 증여, 유언등이 있고
법률행위는 1.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여, 2 법률효과가 발생
2. 법률효과는 = 채권 채무의 발생인데
계약은 채권 채무가 쌍으로 발생,
나머지는 채권 채무가 일방으로 발생합니다.

결국은,

위와 같이

주제-구조-가치판단으로 정보처리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요즘 요구되는

단순한 눈으로 푸는 문제는 이전에 이미 초월한 현 수능 국어의 주 소입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앞의 구조도 참조

실체법은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그 요소로 청구권=채권의 정보 당연히 있습니다.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역시, 앞의 구조도 참조

절차법은 실체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소송, 집행에 관련 법률입니다.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한 선지입니다. 일단 정답.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 **서술어**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S 의미상 주어)라 한다.

해석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가 있으면 => 법률효과 있다

③ 법률행위가 없으면 => 법률효과 없다

뭐가 틀렸는지 안 보이시죠?

그게 바로 내용 일치의 한계입니다.

발체독, 내용 일치 => 정보 간의 관계 파악 불가

=> 오류 발생

구조 보세요.

T : 법률행위 (아래는 종류)	1. 의사표시 (요건)	2. 법률효과
-------------------	--------------	---------

즉,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즉,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이지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는 요소 관계이지

주어 서술어 관계거나

원인 결과로 발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즉, 구조-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단락 및 7단락 구조 P-S.

사적 구제는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법등의 절차법에 따라 공적 구제 받을 수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항절제 : 비교 대상

앞의 구조도 참조

㉠ 상황은 매매 계약

㉡ 상황은 단독 행위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대금은 줬는데, 물건은 안 준 상황.

즉, 매수인의 청구 + 매도인의 이행 = 변제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단독행위는 1. 일방의 의사표시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다른 법률행위에요! 당연, 둘의 채권 채무는 다르지!

3~4번 선지 엮는게 보이죠?

선지 하나 하나 단독 OX 느낌 보다는

주제 구조 잡고 맞는게 뭐지? 쪽쪽 보는 느낌!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정답이죠

T : 법률행위 (아래는 종류)	1. 의사표시 (요건)	2. 법률효과		
계약	합치		채권	채무
		매수자	소유권 이전 요청	대금 이미 지급 변제 완료
		매도자		소유권 이전 의무
단독행위	일방		채권	채무
		채권자	원상회복 =대금 돌려줘 청구권	
		매도자		대금 돌려줄 의무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문 발체독 하려면, 세부 내용이 아니라

주제 구조 정보가치가 항상 우선이라 했습니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결국 채 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 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구조 보세요.

C : 을의 과실 => E.P : 이행 불능 => S : 계약해지권

정답 끝!

항상 수업 때 말했듯
법률 구조는

사례 => 원리 확립 => 사례 적용
구조와

PS
구조 유의하시고
그 결과 딱! 보입니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절차법 vs 실체법
3단락 이후 구조!

+
매매의 목적인 그림은 이미 소실 = 계약무효 = 계약해지
즉, 이미 준 대금을 돌려받고 끝!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불 타기 전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가능 했징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소리어... 계약무효 => 계약해지 => 원상회복 => 돈 돌려줘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정보 후 처리. 표처리 뺏세게

T : 법률행위 (아래는 종류)	1.의사표시 (요건)	2. 법률효과		
계약	합치		채권	채무
		매수자	소유권 이전 요청	대금 납부 의무
		매도자	대금 납부 요청	소유권 이전 의무
단독행위	일방		채권	채무
		채권자	계약 무효 요청 권리	
		매도자		계약 무효 수용 의무
증여	합치		채권	채무
		증여자		증여 의무
		수증자	수증(증여 받을) 권리	
유언	일방		채권	채무
		유언자		상속 의무
		수증자	상속 권리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주제. 법률행위. 요소.

1. 의사표시 공통점. 맞췄

2. 법률 효과 발생 맞췄

선지 하나 하나 OX 아닙니다... 정보 후 처리. 표처리 뺏세게 교과서 보세요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정답!

2. 법률 효과 발생

=> 채권 채무 발생 => 채무를 다해 채권 소멸 = 변제

당연히, 정답!

이거, 주제 구조 처리 가치 판단 이해하고 가야지
발체독 가면...

일부 정보에 집중하니

당연히 정보 왜곡 발생

음...매매랑 차이가 있긴 하지?

그럼 맞는 선지인가?

이러면서 실전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나머지도 표 보고 처리해보세요

깔끔

이제 종결 갑니다.

2021 수능 (만점자 151명. 아래의 지문을 100% 처리 = 전국 100등권)

1단락. 기술 문제은행.

Topic setting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

예시 이해

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

예시 이해

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하위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 지문 특성상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터질 수 밖에 없는 지문입니다. 평가원, 즉, 신급의 정보처리는 다음과 같고 여기서 학생 나름대로 실전에서 극복할 수 있다면 전국 100등 수준이니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버텨보세요. 우리 새끼들 그 정도는 하고도 남으니까

배인호 초격차 국어



1단락 주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	필수부사	목적어	서술어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권리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행위를	해줄	의무
			= 급부 =재화용역 +그외내용		

역시 주제가 세팅되는 첫단락 끝, 두 번째 단락 첫 부분에 '급부'가 핵심

평가원의 설계 해설

항상 그렇듯, 구조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역시나 1단락은 기존 기출 내용을 반복 세팅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내용 재구성 구조/관계 세팅

이 지문의 통제사상-key word가 '급부'인데 단순히 행위, 즉 재화(물건 거래)나 용역(서비스)이 아니라

'급부'가 '권리'인 것이 예약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단락 주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행위		1. 의사표시	2. 법률효과
계약	예매	합의-계약 성립	채권-채무 발생
	예약	합의-계약 성립	채권-채무 발생
	본계약	합의-계약 성립	채권-채무 발생

즉, 이미 기출되었듯이 법률 행위는 1. 의사표시에 따라 2 법률효과 발생합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는 계약, 단독행위, 증여, 유언-상속 등이 있었는데 이 지문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예매와 예약과 본계약으로 나눕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에 언급된 예시를 적용해 정리 합니다.

법률 행위	1.의사표시 (요건)	2.법률(효과) 발생		
예매	계약 성립		채권	채무
		예매자	기차탑승 요청	승차권 돈 지불
예약	계약 성립		채권	채무
		예약권자	본계약 성립 요청	본계약 성립 요청 승낙
본계약	본계약 요청 =>승낙		채권	채무
		급식업체	급식 대금 요청	급식 납품 의무
		소비자	급식 납품 청구	급식 대금 납부 의무

잠시 여기서

3단락 주제 구조는 28번 설계에 따라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의 표에 맞게 재처리 하겠습니다.

4단락 주제 구조는

- C 급부 미 이행
- E P => 채권자의 손해 발생
- S =>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 입증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 발생
- E => 기존 급부 상관 없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 발생

5단락 주제 구조는

- C 타인의 고의 과실
- E P => 채권자의 손해 발생
- S => 타인에게 손해배상 채무 발생
- 이때의 손해배상 = 급부는 동일
- 단, 기존 급부 채무자 or 타인 둘 중 손해배상 채무 이행시
- C 급부가 동일
- E 따라서, 변제 완료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부 내용 아닙니다.

전체 주제 구조, 가치 높은 선지 판단입니다.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위 개념인 법률행위 1. 의사표시 => 2. 법률효과 발생

법률행위의 하위 개념인 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왼쪽 표를 봅니다. 바로 처리 되죠?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역시, 주제 세팅... 바로 보이죠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처리 필수, 바로 보입니다.

예약권자의 채권은 본계약 성립 요청권리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즉, '급부'이행되면 변제 = 채무 소멸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정답.

5단락 주제 구조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주제 구조 못 잡고, 선지 내용 휘둘리면, 당연히 1번 선지부터 맞아 보입니다.

기차 탑승도 권리니까 채권이겠지?

라면서요

동시에, 돈을 내야 기차를 타는 거니까, 특정 행위... 급부 맞나?

네... 나락으로 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단락 주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	필수부사	목적어	서술어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권리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행위를	해줄	의무
			= 급부 =재화용역 +그외내용		

2단락 예매의 상황 채권 채무는 다음과 같고 사실, 채권자가 예매자도, 기차회사도 됩니다. 표 안 그리고 줄 글 처리하면,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다의성이 생겨나며 굉장히 난해한 처리가 됩니다.

	채권	채무
예매자	기차탑승 요청	승차권 돈 지불
기차회사	승차권 돈 청구	기차탑승 요청 승낙

하지만, 논리베이스-법인 관계로 논리구조를 잡아 이를 1단락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아래의 경우는 채권자가 예매자이지만

	주어	필수부사	목적어	서술어	
채권	채권자가 =예매자	채무자에게 =기차회사	특정행위를 기차탑승을	요구할	권리
채무	채무자가 =기차회사	채권자에게 =예매자	특정행위를 기차탑승을	해줄	의무
			= 급부 =재화용역		

아래의 경우는 채권자가 기차회사입니다.

	주어	필수부사	목적어	서술어	
채권	채권자가 =기차회사	채무자에게 =예매자	특정행위를 구입대금을	요구할	권리
채무	채무자가 =예매자	채권자에게 =기차회사	특정행위를 구입대금을	해줄	의무
			= 급부 =재화용역		

기차 타기 위해 표를 샀다
= 이미 대금 지급이 끝났다
= 기차회사의 채권에, 예매자의 채무가 이행되어, 변제되어 소멸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매우 깔끔.
당연히 기차 탑승은 급부. 끝

기차 탑승 청구권 =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 = 권리 의무가 아니라.. 역시 2번 선지도 끝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정답
승차권 구입 순간, 기차회사의 채권은 소멸. 동시에 의사 합치. 계약 남은 것은, 예매자가, 미래에 기차 태워달라고 할 채권이죠.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봐요...
이걸 세부 내용 일치 발체독 하면 안 보여 잘...
당연히 단어 하나 하나 다 확인하고
그 관계 확인하고... 그거 하나 몇 분 걸려요

주제는 예매, 즉, 계약이잖아?
그런데 계약 없이????
아니 주제가 계약인데 뭘 계약이 없어
바로 삐소리 아웃!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예약의 정의
이 문제는 예매
역시 주제 구조 잡히면 깔끔 아웃!

병기원의 설계 해설

이렇게
전체 주제 구조에 이어
1~2단락에서 예매vs예약vs본계약 개념이 잡히고
각각의 계약들에서의 '급부'에 대한 차이가 보이니
이제 그것을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설계합니다.
역시. 표처리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㉞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법률 행위	1.의사표시(요건)	2.법률(효과) 발생		
예약	계약 성립	채권	채무	
		예약권자	본계약 성립 요청	본계약 성립 요청 승낙
(채권자 = 예약권자)의 채권 = 본계약 성립을 요청=급부 권리 (채무자)의 의무 = 본계약 성립 요청에 승낙=급부 의무				
본계약 =급식납품 계약	본계약 요청 =>승낙	급식업체	채권 급식 대금 요청	채무 급식 납품 의무
		소비자	급식 납품 청구	급식 대금 납부 의무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급식 계약 승낙	ㄴ
본계약상 급부	ㄷ 급식 대금 지급	식사 제공

	ㄱ	ㄴ	ㄷ
①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 지급
②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제공
③	급식 계약 승낙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④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⑤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대금 지급

평가원의 설계 해설 : 정답 1번 끝

사실, 사법시험 합격하셔서 변호사 하시는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 실 정도의 지문이 수능 법 지문입니다.

이유는 고3 수준,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따라서, 법학적성시험도 법학전공시험도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평가원 출제 원칙에 따라

문제은행 + ebs 연계 흐름을 바탕으로 정보 처리 공식에 따라 처리하면 위와 같은 정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답이 쉽게 특정됩니다. 그렇게 풀리라고 낸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 평소 관습 대로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려 하는 순간 정보의 관계와 논리 구조가 맥락에 갖지면서 이해가 도무지 안 되고 적당히 오리다리 발체독 하다가 운 좋게 뭔가 딱 오거나 시간 안에 적당히 찍는 운에 맡깁니다.

따라오세요.

실력자 배인호 초격차 국어입니다.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평가원의 설계 해설
지문 원리 => 보기 사례 적용

4단락 주제 구조는

- C 급부 미 이행
- E P => 채권자의 손해 발생
- #1. 채무자 = 을 = 갑의 머리 손질 의무
- #2. 병의 고의 과실로 인해
- #3. 채권자 = 갑 = 손해 발생

S =>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 입증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 발생
E => 기존 급부 상관 없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 발생

- #4-1. 을의 고의 과실 없음 => 정보 없음
- 을의 고의 과실 없음 입증 못함 => 을의 채무 불이행 책임 발생
- => 이때 채무는 머리 손질 의무 =>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

5단락 주제 구조는

- C 타인의 고의 과실
- #2. 병의 고의 과실
- E P => 채권자의 손해 발생
- #3. 채권자 = 갑 = 손해 발생

S => 타인에게 손해배상 채무 발생
#4-1. 갑에 대한 병의 손해 배상 채무 발생

이때의 손해배상 = 급부는 동일
단, 기존 급부 채무자 or 타인 둘 중 손해배상 채무 이행시
C 급부가 동일
E 따라서, 변제 완료
#5. 을or병 누구든 손해 배상 채무 이행시 갑의 채무 변제 완료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이래야 보이는 맞는 선지!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보이죠? 단순 선지 하나 OX가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잡습니다. 을의 고의 과실 가정을 하고, 일어나는 일을 1~2번 선지 흐름으로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 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1번 선지와 동일한 선지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 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평가원의 설계 해설

3번 선지를 뒤틀어 비교 대조 시킵니다. 내용 일치로 풀면 역시 안 보입니다. 구조로! 그래야 좁히고 발체독이 보입니다. 을은 채무 불이행... 맞죠 원래 채무자니까 하지만 병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채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정답 4번 설계.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은 고의 과실 없음 입증 =>
당연히 고의 과실 있는 병이 손해배상 채무 발생

평가원의 설계 해설

이쯤 되면 느껴야합니다.

문제은행 출제가 어떤 의미로 수능을 설계하는지
왜 배경지식 1도 필요 없었던 1타급 강사들이
갑자기 배경지식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지
그 초격차, 최첨단에 누가 있는지.

강사들의 강사
just 차원이 다른 실력자
배인호 초격차 국어

2011학년도 수능 32~36

1. 지문 구조 및 내용 정보처리
2. 구조도 그리기
3. 문제 풀이

각 랩타임 기록하고, 시간 감각을 익힙니다.

단, 위의 시간이 1지문 가급적 10분 이내, 최대 15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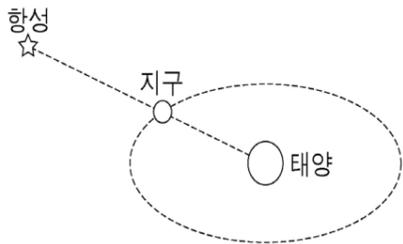
시간이 너무 소요 되면,

수업 영상이나 뒤의 원론 해설을 참고 합니다. .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A]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 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

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36.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위의 지문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지문 접근법으로는 10분도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Q.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합니까? 지금 국어 문제 왜 풀고
A. 답 찾기 위해. 목표 등급 받기 위해. 대학가기 위해.

틀린 답 같지 않지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면 틀렸습니다.

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선발하는 시험

#2. 국어영역
= 국어교육학을 학문적 Base로 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다음 같은 자세는 가져야합니다.

- #1. 나는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해 잘 모른다
- #2. 지금 익숙한 접근법으로는 익숙한 등급만 나온다
- #3.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처리의 사고 수준으로 단기간에 집중, 사고 차원을 바꿔 놓겠다.

쉽게 말해서,
첫 단어부터 끝 단어 까지 모두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모든 선지 하나 하나 근거 찾아 판단하겠다
= 틀렸습니다.

- 그래서는
- #1. 절대로 80분 안에 완결된 정보처리 불가능하고
 - #2. 애초에, 수능 지문 자체도 완결된 정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1. 구조 처리, 가치 판단, 주제 파악

이는 철저하게 수능 시험범위인 국가교육과정 기반하였고,
국가교육과정의 그 실현인 독서 교과서에서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 지문 내용, 일치로 확인 가능한 정보

파란색 : 거시적 정보 구조

주황색 : 미시적 정보 구조

녹색 : 가장 가치 높은 정보

노란색 : 가치 높은 정보

보라색 : 가치가 거의 없는 정보.

단, 기존 언어영역 접근 방법에서는 최대한 끌고 와서

시간, 실수, 정답률, 피로도,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일으키는 정보 (이를 이해 못하시면 그 역지도 존중합니다. 수능에서는 틀렸지만, 인생에서는 1등급, 백분위 100만 옳은 것은 아니니까.)

1 주제 setting

구조 : 어그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그레고리력

차상위 정보 :

P 예상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P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

S 그레고리력 도입.

2 T.S.H.P (Topic Setting Hot Place)

구조 : 문제제기-해결책 제시

최상위 정보 : ㉡율리우스력의 원리와 문제

최하위 정보 : 율리우스력의 윤년 계산 방법

(여기에 밑줄 치고, 정리해서 선지 연결? 네. 딱

중~고i 잼민이들 수준. 수능 백분위 100 확률 거의

없음)

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1단락에 몇 년 몇 월이었죠?
 저는 기억합니다. 년도는 기억 못해도
 춘분은 기억해서, 3월 21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거의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정보가 없죠?

당연합니다.
 인간은 8단위까지만 기억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정보는
 20초면 휘발되는 단기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사고
 매커니즘입니다.

잉?
 기억이 안 나는게 당연하다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학습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거 모르면 최소한 수능 국어 가르칠 생각은...
 좋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는 있어도
 가르칠려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평가원은 말합니다.
 독서의 본질 :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즉, 독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엮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뿐입니다.

1 주제 setting

구조 : 어그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그레고리력
 차상위 정보 :
 P 예상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P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
 S 그레고리력 도입.

2 T.S.H.P (Topic Setting Hot Place)

구조 : 문제제기-해결책 제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율리우스력의 원리와 문제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

아! 기존 율리우스력이 중세에 중요했던 종교, 즉,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원리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레고리력이 도입되었겠군!

3 문제와 해법고찰

구조 : P-S(problem - solution)
 최상위 정보 : 해법은 2가지.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정확 but 일반인 이해X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중심 반영
 ⇨ 덜정확 but 일반인 이해O

4 시각 자료 텍스트 해석, 과학 원리

구조 : 그림 이해, 과학 원리
 최상위 정보 : 항성년과 회귀년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항성년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절기에 맞는) = 회귀년
 항성년 > 회귀년

5 회귀년 원리 설명

구조 : 수치, 처리
 최상위 정보 : 없음항성년과 회귀년
 최하위 정보 : 회귀년의 윤년 계산 방법(가치 낮은 정보)

정리합니다. 보라색 제외한 검정색 위주로 이해 처리
해주세요.

1

P-S㉠그레고리력 => 부활절 정확

2

P㉡율리우스력 => 부활절 부정확

율리우스력 윤년 원리 : 정보가치 낮아. 안 중요
정답 선지에 큰 영향 없음

3

P 기존 역법 부활절 못 지킴

(부활절 못지킨다? = 중세 정치, 권력 근간인 종교가
틀렸다 = 기득권 체제가 박살날 수 있음. 해결해야함)

S 당시 기준 최첨단 과학기술 보다는 < 절기 중심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즉,
춘분=태양 절기 지켜야함)

4

S 회귀년

(절기에 맞음 = 역법 개혁 이유 = 부활절 지켜)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항성년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절기에 맞는) = 회귀년
항성년 > 회귀년

5

회귀년 윤년 원리 : 정보가치 낮아. 안 중요
정답 선지에 큰 영향 없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량은 간단, 압축됩니다.
길어야 8~10개의 단어, 정보.

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329단어 => 10단어로 압축

즉,

#1. 329 단어를 전부 기억하는 인간은 없으며,

#2. 첫 단어 정보부터, 끝 단어 정보까지 모두 처리하는
능력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으며,

#3. 정보 구조 처리가 가능한 것이 훨씬 뛰어난 능력이고

#4. 정보 가치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고 필요한 능력이며

#5. 그에 따라 주제에 집중해, 결국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처리로 귀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8~10단위 수준, 누구나 처리 가능, 기억 가능한
정보. 바로 답 고릅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
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첫 문항 유형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답이유

글의 주제는 율리우스력에서 갑자기 그레고리력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그 전개입니다.

부활절(종교)=춘분(절기)를 지켜야 함

=> 그레고리력(회귀년 기준) 도입으로 해결
정답.

오답이유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문항설계 : 구조 처리 - 1단락 도입 구조

1단락 도입부의 어그로입니다.
한 번에 10일을 바꿨다 = 예상되는 문제
=> 그래도 더 큰 문제 해결 위해 도입했다.

오답이유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문항설계 : P-S 구조 처리

교회, 중세의 권력의 요구로 역법 개혁
그러나, 과학적 근거, 회귀년과, 항성년 비교 및 통계 활용

오답이유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문항설계 : 내용일치의 경우 오답 위험 높임

역시, 주제 처리

결국 주제는 교회, 중세의 권력의 요구로 역법 개혁
따라서, 천문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절 지키는 것
즉, 절기에 더 부합한 회귀년 선택.
그렇다고 과학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적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이때 도움이 되는 사고 방법 '베이즈주의'

정답 스펙트럼

완전 과학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완전 종교

릴리우스는 위의 한 50~60? 정도에 있을 것 같음
반면, 완전 골수 과학 주장은 0
완전 종교 주장은 100

그러면, 4번선지, 큰 관심 = 아마도 10~20아닐까?

즉, 문제에서, 100% 옳은 것, 그른 것이 아니라
가장(1~99%)옳은 것, 그른 것을 묻는 이유.

오답이유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문항설계 : 숨겨진 주제

천동설 : 중세 - 종교 경전 base
지동설 : 근대 - 과학 기술 base
당연히 종교 힘이 좀 더 강했으니...역법 개혁 필요성 제기
그 결과, 회귀년 기준으로 갖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내용 일치 발췌독으로 풀면 안 되냐구요?

됩니다.

내년 수능 치고 싶으면

혼자 8시 40분 부터 수능 국어 3시간 풀고 싶으면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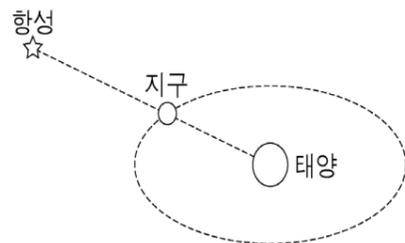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정답 근거 찾아서 밑줄 쳐봐요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근데요... 이 근거들 언제 다 찾을건데?
아니... 고3 시험이 왜 시력 문제인데요?
눈으로만 푸는 문제를 고3한테 왜 냅니까?
고1 잼민이 시절 풀던 문제 접근을 하는 학생이 뛰어남?
저득점 목표를 한다면 마음대로...

이제 쓸데 없는 접근법 더 설명 안 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두번째 문항 유형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바탕,

지문에 원리가 있다면,

유형1. 지문 원리 바탕 보기 선지 사례 적용 또는,

유형2. 비교 대조 지문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정답사고흐름

	서양	동양	
역법	그레고리력	태음태양력	
책임이 수준 배경지식	양력=태양 기준, 음력= 달 기준 서양은 양력, 동양은 음력 (ex 양력 설 1월 1일, 음력 설1~2월 중)		
구분	양력 = 태양 주기 기준	음력 = 달의모양주기 양력 = 태양절기(주기)고려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맞는이유 : 주제+구조 공통점

부활절 :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보름달 = 달의 모양

음력 :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 = '달의 모양' 주기
맞음.

하지만, 이는 처럼 비교 대조로 표처리 의도로 보는 것이
앞으로 편해지는 접근법임.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맞는이유 : 주제+구조 공통점

서양 : 회귀년 - 태양 절기 고려 => 태양 ∈ 천체

동양 : 보름달 주기, 절기 고려 => 달, 태양 ∈ 천체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틀렸음! 이게 정답!

??? 맞는데? 맞는이유 : 내용일치

맞잖아!

부활절 :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그러면,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 고려한 거 아냐?

놉!

춘분 - 매년 돌아오는 절기 = 주기

이후 첫 보름달 = 주기가 아니라, 1일 뒤가 될 수도, 10일 뒤가 될 수도 있음.

즉, 주기가 아니라

보름달 '모양'이 중요!

야! 1번 선지는?! 그거도 달의 모양? 주기?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야! 달의 모양이네? 주기가 아니라?

헐... 모양...주기 한 단어 찾아야 하네.

엄청 꼼꼼하게 봐야하는구나?!

이런 사고 흐름은

= 전형적인 3등급 수준

(물론 편차에 따라서 1등급도 가능. 근데 그것도 최소 5~10년 전 수준)

평가원 의도 정답사고흐름으로 교정하세요!

전체 정보는 329단어

그 중에, 모양, 주기라는 단어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하지만, 주제 구조 좁히면?

달의 주기(동양) vs 달의 모양(동양, 서양 모두)

329단어에서 1~2단어 찾기가 아니라

10단어에서 1~2단어 찾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문항 설계

내용일치 아님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바탕. 후처리.

즉, 비교 대조 지문.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따라서,

주제는?

㉠ 율리우스력의 문제

㉡ 그레고리력이 해결

그 과정에, 중세-근대로 넘어가는 시절의 가치관 반영

즉, 근대 과학 기술도 일부 반영

따라서, 정답 2번선지 끝~!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문항설계

추론적 사고 - 유비추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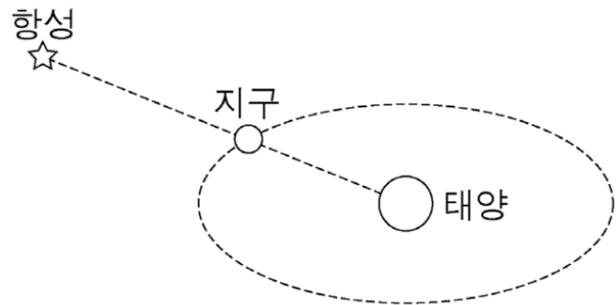
그리기 필수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①	항성	항성년	회귀년
②	항성	회귀년	항성년
③	지구	회귀년	회귀년
④	지구	항성년	회귀년
⑤	지구	회귀년	항성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니
 아마도 태양 = 식당의 중심축
 이건 될텐데
 돌고 있는 철수가 지구인지, 식탁이 지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추가 원래 그래요.
 다시 주제 구조 갑니다.

4

S 회귀년

(절기에 맞음 = 역법 개혁 이유 = 부활절 지켜)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항성년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절기에 맞는) = 회귀년

항성년 > 회귀년

㉢ 60초 > ㉡ 57초

60초가 항성년 = 폭포 기준이 항성년 = 폭포가 항성

그럼 남는 것은 철수 = 지구

정답 5번 끝.

3페이지 독서 평이~준킬러

4페이지 독서 준킬러~킬러

출제예상 되는

과학기술 및 경제지문

경제지문은 기존 원론서 꼭 참고 바라며,

기존 원론서의 일부 개정 내용은 추후 수강반 단톡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1. 지문 구조 및 내용 정보처리
2. 구조도 그리기
3. 문제 풀이

각 랩타임 기록하고, 시간 감각을 익힙니다.

단, 위의 시간이 1지문 가급적 10분 이내, 최대 15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 되면,

수업 영상이나 뒤의 원론 해설을 참고 합니다. .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 [A] 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14.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밑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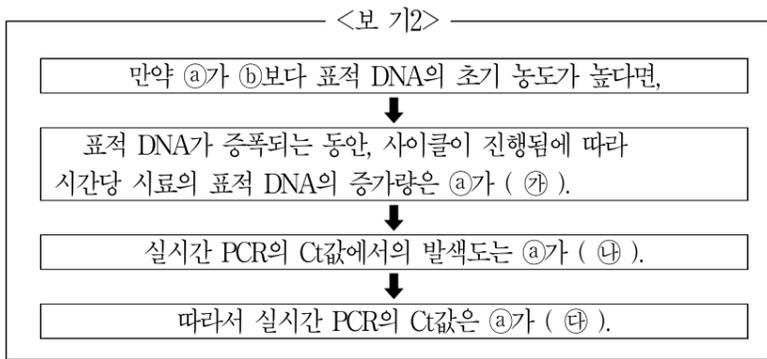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17.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⑥ ㉡보다 높겠군 | ③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⑦ ㉡와 같겠군 | ④ ㉡보다 작겠군 |
| ③ ㉡와 같겠군 | ⑧ ㉡보다 높겠군 | ⑤ ㉡보다 작겠군 |
| ④ ㉡와 같겠군 | ⑨ ㉡와 같겠군 | ⑥ ㉡보다 작겠군 |
| ⑤ ㉡와 같겠군 | ⑩ ㉡보다 높겠군 | ⑦ ㉡보다 크겠군 |

일단 17번..

안 풀리쥬?

17번만 문제가 아니라 오답률 난리.

이유?

1페이지 보고도 모르실까..

1페이지 대로 읽으심?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내용 하나 하나 꼬박 꼬박 다 처리
했으나,

결국 지문에서...응? 원소리??

이러다 문제 풀 때 하나도 판단 안 되니까

왔다갔다 이차저차...

바뀔시다.

구한말. 전근대적. = 언어영역 30년 다 된 정보처리

vs 근대적 = 국어영역. 이 시대의 정보처리 능력

여기 여백에 나름 구조도 그려봅시다.

그리고 선생님 구조도와 비교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도인**

요소
분자->증폭

①주형DNA
표적DNA

②프라이머

③중합효소

④뉴클레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양쪽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과정
①주형DNA 열->분리
이중->단일

②프라이머
처음.끝.결합

③중합효소
뉴클레오-
복제 1사이클
--2배
④충분.종료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은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장/단점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장/단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독립
정보
군집
출제의도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결론
의의

1 주제 구조 세팅. 요소

- 주제 : PCR 구조 : 주제세팅. 요소
- 주제세팅 : 염기서열 아는 DNA한분자라도 -> 증폭
- 요소 : ①주형DNA, ②프라이머, ③중합효소, ④뉴클-
- ①주형DNA : 원본 - 복사 대상 : 표적DNA
- ②프라이머 : 복사 처음 끝
- ③중합효소 : 복사 ④뉴클 :

2 과정

- 주제 : PCR과정 구조 : 과정
- ①분리 : 이중 -> 열 -> 단일가닥DNA
- ②결합 : 프라이머 : 단일가닥DNA에 처음 끝 결합
- ③복제 : 중합효소 -> 2개 2중 가닥
- 1사이클 : 2배 증폭...충분 ④종료

전통적인 PCR 최종산물 결합 - 발색

3,4 실시간 PCR 원리 및 장단점 (LFA참조)

- 실시간 PCR
- 공통점 : PCR 실시
- 차이점 : 최종산물 결합 - 발색 vs 누적-발색-실시간
- ①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 3단계-새로 생성 이중가닥 DNA에 결합 발색
- vs
- ②형광 표시 탐침
- 2단계 결합 3단계- 분리 발색
- 5 독립정보군집 별도 문항
- 6 결론. 의의

꼭 유튜브 해설 영상을 바탕으로 이 해설지 참조 바랍니다. (kortube.net)

111프로젝트

혹은

배인호 초격차 국어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 온 학생들은 여기까지

- 1. 구조를 바탕으로
- 2. 정보가치 판단
- 3. 주제 중심의 내용 이해가 끝났습니다.

핵심 정보와 원리는

PCR은

DNA정보를 미리 아는 분자 하나라도 DNA가 있다면

- 1. 원본DNA에서 - 복제할 부분 : 표적DNA
- 2. 그 끝에 붙는 프라이머
- 3. 그걸 바탕으로 중합효소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서 복제 - 2배씩 증가
- 4. 충분히 지나면 완료

--- 검출은?

일정 기준 이상 발색도 = 검출

이렇게 처리 되고나면,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이상하죠? 정답확률 높으니. 주제구조 좁히고 발체독.

우선, 프라이머 - 복제할 대상의 처음 끝에 붙는데 원소리지? 돌아가보니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1단락 해당 부분 밑줄에 이미 나왔네. 바로 정답.

배운대로, 주제-구조 좁히고 발체독. 정답 특정.

나머지 선지는 해설하지 않으려 했으나 본 수업/적용 익숙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해설 합니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네. 원리는? 1회 사이클 2배씩.

당연히 처음~2배 = 1사이클

4배~8배도 결국 4X2=8 = 1사이클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5단락 원리인데.

표준시료를 기준으로

단,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실시간.

역시 주제 + 구조

전통 vs 실시간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역시 주제 + 구조

실시간도 결국 PCR. 1단계는 가열...로 시작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역시 주제 + 구조

실시간도 결국 PCR. 1,2,3,4, 요소 필요

당연히 3~4단락 정보 군집.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주제 + 구조

주제에 집중하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3단계-새로 생성 이중가닥 DNA에 결합 발색

vs

㉡형광 표시 탐식

2단계 결합 3단계- 분리 발색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근데 프라이머는 PCR에서 처음 끝에 다 붙는 거 아닌가?
이합체? 이걸 나중에 발체독인데...
PCR거치는건 공통점 같은데? 차이점??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역시. 주제는 발색이니까.
ㄱ결합 발색. 맞는 것 같은데?
좁히고 발체독! 맞네!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역시. 주제는 발색이니까.
ㄴ 분리 발색인데? 뭔가 이상하고..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ㄴ은 2~3단계에서 일어났는데? 1단계 아니다?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ㄱ이 결합발색인데?

위와같이, 주제, 구조 좁히고 발체독. 2번 정답 특정.
이렇게 가야하는 이유는

모든 정보 다 동등하게 다 살려서 100개의 정보 - 선지 5개
정도 매칭 보다는,

구조, 정보가치 판단, 좁히고 주제 중심 이해
100개 정보를 20개로 좁히고 선지 정보 5개 매칭이 훨씬

쉽고, 빠르고, 실수 없습니다.

지문 원리 이해, 문제 적용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
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딱 봐도 3번까지는 전통 vs 4번부터 실시간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
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감염여부에 초기 바이러스양, 감염초기, 이게 관련있었나?
주제 원리 아니었는데? 나중에 정답 없으면 발체독
해야지...로 접근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가격이야기... 있긴 했는데 핵심은 아니었으니
역시, 나중에 정답 없으면 발체독 해야지...로 접근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아니지... 실시간이 훨씬 빨리 아는 건데?
확실히 틀렸고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
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당연하지? 원래 뭔지 알아야 하니까.
표적 DNA... 1단락에 정의로 좁히고 발체독...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역시! 정답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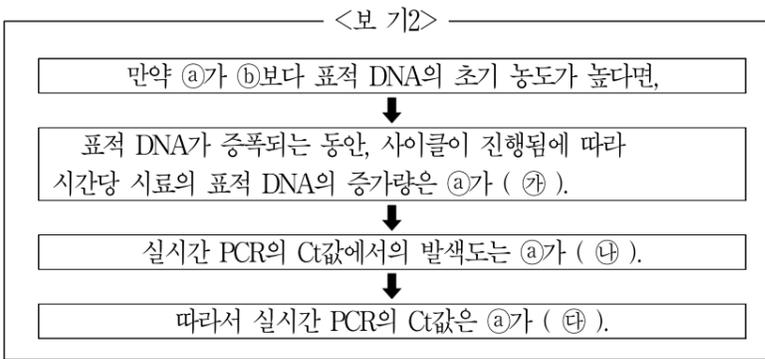
실시간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 실시간이지!
틀렸어!

17.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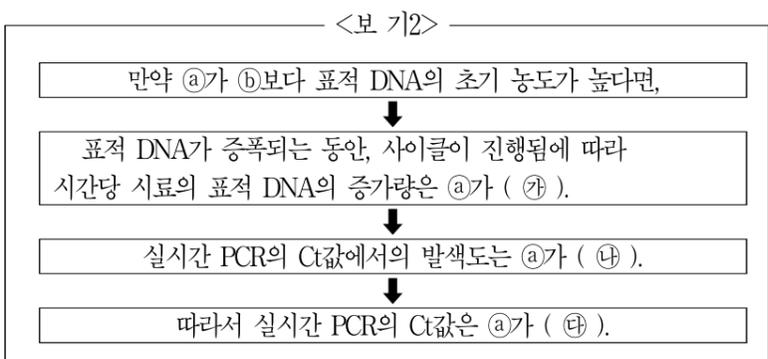
- | | |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① ㉡보다 높겠군 | ①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② ㉡와 같겠군 | ② ㉢보다 작겠군 |
| ③ ㉠와 같겠군 | ③ ㉡보다 높겠군 | ③ ㉢보다 작겠군 |
| ④ ㉠와 같겠군 | ④ ㉡와 같겠군 | ④ ㉢보다 작겠군 |
| ⑤ ㉠와 같겠군 | ⑤ ㉡보다 높겠군 | ⑤ ㉢보다 크겠군 |

우선 이과 학생들(수학 편한)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핵심 정보 / 원리

- ① 발색도 =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양 비례
- ② 일정 수준 발색도 = 초기양X2X2... 사이클횟수
- 아마도, 초기 양이 많으면, 사이클이 덜 돌아도 되겠지?
- ③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_t
- ④ 표준 시료 기준 C_t 비교 미지 시료 C_t



만약 ㉠가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a>b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가 (㉠).

㉠의 초기 농도 = a,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a^{2ⁿ}

㉡의 초기 농도 = b
 ㉡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b^{2ⁿ}
 a^{2ⁿ} > b^{2ⁿ}

가. 당연히 ㉠가 ㉡보다 높다! ①/②번 정답!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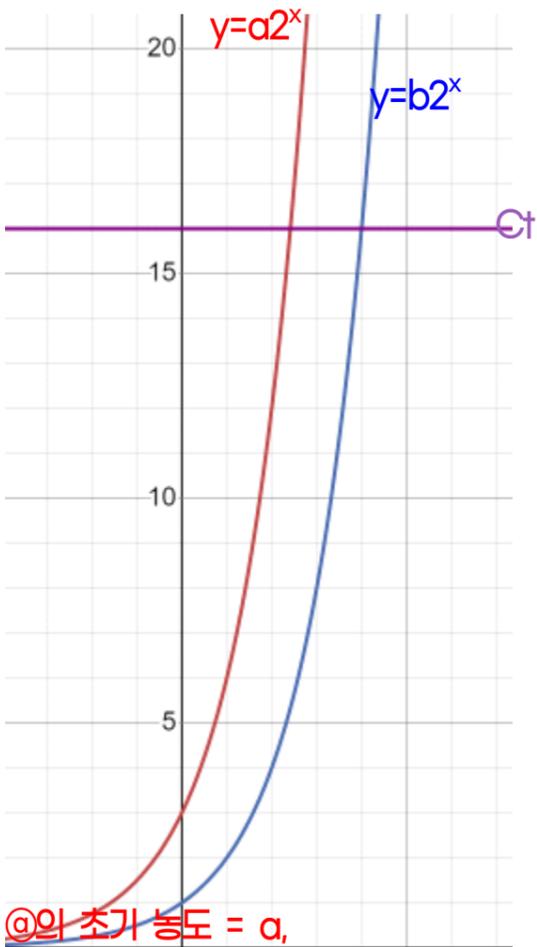
**당연히 a가 더 높은거 아니야?
 그럼 1번 선지?**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가 (㉠).

**애도 당연히 a가 더 높은거 아니야?
 그럼 2번 선지?
 잉? 정답이 없네???**

이게 정답률 20%. 오답률 1등. 1/5. 주시위 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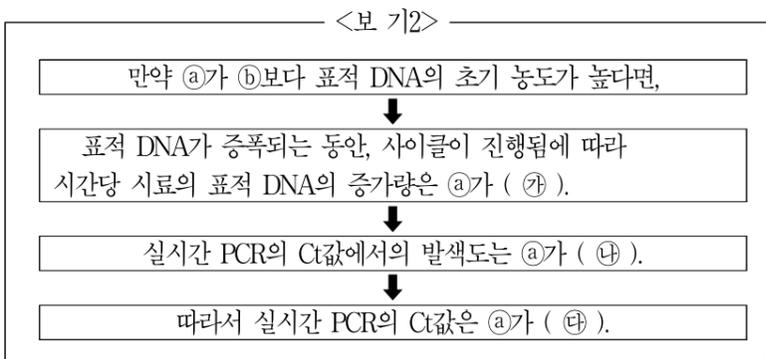
**이과 학생들의 질문에 따라,
 간단히 그래프 그림니다.**



㉔의 초기 농도 = a,
 ㉔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a2^n$
 $y=a2^x$

㉕의 초기 농도 = b
 ㉕의 n회 사이클 후 농도 = $b2^n$
 $y=b2^x$

㉓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t



㉔
㉔
㉔
 ㉔ ㉕보다 많겠군 ㉕와 같겠군 ㉕보다 작겠군

즉,
 ㉓ 검출 판단 기준 발색도 도달 사이클 Ct
 은 a든, b든 같고,
 그래서 나. 선지에는 같다! 정답 2번!

이번엔, 문과 학생들(언어적 설명이 편한)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당연히 초기 농도 a가 크니까,
 증가량도 ㉔가 더 크고
 ㉔ ㉔가 ㉕보다 더 크다

사이클 횟수는 더 작아도,
 기준점에
 더 빨리 다다르겠지
 ㉔. 선지는 ㉔가 ㉕보다 더 작대!

그런데?
 a든 b든 기준점은 검출 같잖아?
 사이클 횟수는 ㉔와 ㉕ 동일!

이어지는 것은 서정 장르

5th 서정 장르

감정 표현이 핵심.
 인스타, 카톡 프사, 모두 감정 표현.
 과거에는 노래였던 시로 감정 표현.
 이제는 노래로, 힙합으로, 랩으로 감정 표현.
 별 거 없음.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애오욕

따라서,
 자세는 : 나라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상상해보기
 주제는 : 정서, 감정, 느낌, 태도, 자세, 사상, 생각...
 상황/분위기 => 문학적 관습 => 정서 파악

문장 / 작품 전체 수준의 구조 처리 => 의미 명확
 => 문학적 관습 => 주제 정서 파악 => 87% 정답

일부 개념어 확인 문제 13% 수준

5th 서정 장르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펼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끈이끈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펼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 간밤. 무엇을 간구. [A] 울었음
이면적 정보
 뭔가 찾는 부정적 상황같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전환
표면적 정보
 ↓ 아침. 시. 굽이굽이. 은은히
이면적 정보
 아침이 되면서 좋아졌나?
문학적 관습=처리근거
 시인에게 시 = 긍정!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유지
 꽃... 긍정 상황이고
 숨으라? 이걸 잘 모르겠는데..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유지
 환히. 트이는. 떠오르는. 꿈
 모두 긍정!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유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니까
 가락을 더듬으니
 역시 모두 긍정!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유지
 즐거이 노래 부르니까!
 근데 왜 사양하라고 하지?
 이것도..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집약-주제
 수미상관이네? 그런데
 노래로 바뀌었으니 [B]
 슬픔 = 부정
 노래 = 긍정 상황 전환!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군!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끝이끝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아마도
 나무 = 나 = 시골에서 온 존재
 = 솔직함
 그랬더니 도시 적응이 힘든데?
 도시 = 벌레들 날 땀
 살기 힘들다 = 신경증, 불면증
 =치욕같구나...
주제
 나무와 나의 동일시
 ⇒ 도시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딱 3번 선지 정답확률87%
 맞네!
 (가) 부정→긍정 전환있고
 (나) 주제는 당연히 있고
 좁히고 발췌독... 명령, 단정. 있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등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
 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나)는 단정
 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
 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 4번만 out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운개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
 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역시 전환!)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
 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부정→긍정!)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
 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부정→긍정!)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
 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잠시만... 숨으라... 사양하라... 지향점? 이상한데?! 전환도 없고!)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
 다.(그치! 기원 ⇒ 실현! 전환. 역시 정답은 그럼 4번이군!)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주제 집중. 바로 5번 정답!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
 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
 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
 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
 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
 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
 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
 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역시 주제!)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역시 주제!)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
 을 드러내고 있군.(역시 주제!)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
 을 보여 주고 있군.(역시 주제!)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
 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나무를 왜 비판해! 도시가 문제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문학적 관습!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이면적 정보
성찰 ⇨ 자기 비판이군
*매우전형적 주제

유지
표면적 정보
벗. 마음에 안 든다
이면적 정보
부정적 인식

유지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유지
여기도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집약
수미 상관 하면서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자아 성찰/비판이군!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뭇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을 겨울 몫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붙들린 배 = 혼련 = 얼었어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유지-표면적 정보
왜 우리는 바웃고 시시덕 대고
웃음을 참지 못해?
불박힌 말?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비판?

집약
부자유+팡팡팡 몫시 춥다
이면적 정보 바웃음 = 비판
열고, 변화 가능성 안보임

- 김혜순, 「차가운 어귀 눈이 내리나」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성찰/자신이 마음에 안들 = 주제
5번 말고 있음? + 수미상관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구조:축발!)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정답! 문학적 관습. 스스로 부자유? 아마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자유겠지! 혼련이 어떻게 내부요인임?)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비판!)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부자유 비판! 2번 선지와 대립.)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역시 주제의식!)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후 [3점]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문학 설계에 따라 보기연결!
+베이즈주의 정답확률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잠시만요.. 정답이 이러면 없나?
아 역시!
상황 ⇨ 반응(정서)
(가)나의 영이 죽어있는 것 아니냐 = 비판/성찰에서 끝나는 걸까?
= 선지처럼 좌절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 뭐하러 비판 / 성찰해? 어차피 해법이 없으면???

아! 역시 문학적 관습.
비판/성찰을 한다는 것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다만, 해법을 찾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법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지

0% 100% 정답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②③④⑤		

100% : 성찰

80% : 성찰의 전제(1)를 생각하자
= 고민만 하고 끝날까? or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

70% : 성찰의 전제(2)를 생각하자
= 해결 방법이 없는데 성찰할까? or 해결 방법이 있는데 성찰할까?

100% : 문학적 관습 + 평가원 출제 의도 + 교육 목표 생각하자
= 체념을 가르칠까? or P-C-S 해법을 찾아가게 할까?

40% : 물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부정적 현실 인식과 성찰 차원에서만 머무른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문학적 관습 - 평가원 mind set에 비추어 보면 옳을 확률은?

그렇다면 아마도? 정답은?
①

20수능 베이스주의 논리처럼,
14기출 칸트 이성+감정 ⇨ 미감적 판단력 : 공동감 = 공동체의 감각
ebs 기출 : 의미 이론 1.주관 ⇨ 2.객관 ⇨ 3.사회/공동체

위와 같은 평가원 문학적 사고 틀 잡으시길 바라고,
6-9의 소설 파트는 큰 이슈가 없어서, 22예비평가로 다루겠습니다.

6th 서사 장르

인간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따라서...

인물의 성격과 내면심리로

인물들이 만들어 내는 장면, 사건, 갈등들이 이어지며

그것이 어떤 줄거리, 서사를 만들고

그것에서

학습자가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출제 의도이자 핵심

따라서

1. 초반부 인사배 구성의 3요소 파악 후

2. 인물 = 내면심리, 성격 파악하며

3. 사건 갈등 장면 분위기를 파악하며

4. 이어지는 서사 줄거리 파악이 핵심

5. 인물이 너무 많으면 주인공 + 주인공 중심 서사 파악

다음 지문은

1. 위의 처리할 정보를 처리하되

2.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50~100%를 고민하고

3. 실전인만큼 50~70% 이내의 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처리하며 랩타임 체크

4. 필요시 구조도 정리

5. 이후 문항별, 선지별 랩타임 끊고

6. 시간 감각 잡아 갈 것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겔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A]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B]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며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 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체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체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냐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예비)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C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E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E ← C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려.”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나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A]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B]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현몽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지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마음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지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1. 줄거리

형식 - 영채와 먼저 약혼. 죽은 줄 알았고

형식 - 그래서 선형과 약혼 + 미국 유학 그런데 영채가 두드등장?

#2. 표면: 외적 갈등 - 작가의도/이면: 내적갈등

#3. 장면[A] 표면: 내적갈등 < 감정/감성 근거

미국 유학 - 선형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표면은 우선과 대답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이 내적갈등

[A]로 이어짐

(중략)

#4. 장면[B]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갈등 < 이성적 근거

#5. 성찰: 사랑-개인 차원 슬프다 보다는 미성숙하구나!

#6. 성찰: 사랑-사회 차원

P 조선 어린 없는 사회-S 내가 어른 되어서 계몽해야지(가르쳐야지)

P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 - C 조선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즉, 사회도/공동체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S 당연히 해법은 개인적 계몽,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계몽이겠지

(문학적 관습 근거, 평가원 mind set)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갑자기 자기주도? 자기희생?

주제 잡자...

[A]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 감성/감정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정답! 맞췄어. 역시 주제-구조-핵심 갈등-서사 잡으라 했음!

[A] 선행이나 영채나 = 사랑의 대상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근거!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2번 선지 이어지는 사고 흐름 보입니까!

이성과 감성 뒤집었군! 다시 한 번 2번 선지!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뭔가 핀트가... 현재와 미래? 그런 상황이 아닌데?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둘 다 내적 갈등인데 확신이 어디 있어!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발 이것도 주제 좁히고, 필요? 좁히고 발췌독!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인과 구조 정확히 잡으구요!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행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 이게 만류하는 친구 입장이라면 역시 정확하고!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형식이 입장이면 구조/내용 맞구요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행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잠깐 stop!

#3. 장면[A] 표면 : 내적갈등 < 감성/감정 근거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선행이랑 가는게 미국유학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역시 핵심사건. 갈등. 정보가치 높은 것에 집중! 정답!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냐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에 setting된 주제의식

문학적 관습

성찰 < 개인적 - 사랑 - 미성숙

성찰 < 사회적 - 미성숙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윤리, 권력... 당연히 아니구요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문학적 관습으로, 조선-개화기-계몽사상-일제강점으로 이어지면 3/4 번선지 고려도 가능하지만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이것이 가장 주제에 가깝쥬! 정답 스펙트럼!

어린이 : 미성숙 = 이상 관념 수준

어른 : 성숙 = 이상 체득

정답!

미스터 선사인 출제 가능 높다고 한 근거!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T1. 연애=개인 주체인식, 자아인식)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T2. 연애=사랑=결혼 제도 변혁)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T2. 제도변혁이니깐!)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T3. 계몽!)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T4. 진실발견)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T4. 성찰-결핍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의식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T1. 근대적 자아 개념의 확립과

T2. 사회 제도 변혁과

T3. 계몽가

T4. 진실발견-성찰-결핍발견

결국 사회도/개인도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부연 설명 하면,

조선시대 여성은 이슬람 회잡 같은 것 쓰고 얼굴 못 내놓고

노비들은 이름도 없고

주체적인 사랑? 당연히 없고!

결혼? 사랑이 아닌 가문의 결정이고!

즉, 개인의 주체적 삶의 결정 불가능

그런데? 개화기? 사랑? 자신의 선택!

역시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T2. 근대적 제도로의 변혁으로 이어지며

T3. 미개한 그 시절 개화 즉, 계몽으로 이어지고

T4.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진실의 발견 = 성찰 = 결핍, 즉 부족함의 발견 = 그래야 성장하겠지.

평가원의 따스한 한 마디 하시겠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 이어지는 사고 흐름!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이어지는 주제 흐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제도 변혁, 그리고 계몽성까지!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T4이어지는 주제 흐름!

그리고 평가원의 사고 흐름 보이시나요?

역시! 평가원.. ㅠ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뭘요? 네. 역시 정답. 주제 집중하면 말도 안 되는 진술 보입니다.

7th 8th 고전과 장르복합

우리도 사투리가 심하면 대화가 힘들지만
비언어, 반언어, 억양, 단어, 맥락등으로 파악 하듯
수 백년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소통 가능

그래서 더더욱 100% 이거대! 라는 해석은 존재할 수 없음
그렇다면 암기 능력 보다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 추론하는 논리적 사고와
그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를 뛰어 넘는 소통의 능력과
결과적으로 과거의 누구와도 공감, 교감,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끼리의 갈등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이것이 바로 평가원이
고전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따라서...

1. 현대사-서정장르와 마찬가지로
2. 정서 파악하되
3. 소리나는대로 속발음 하고
4. 문맥, 한자어 추론한 뒤
5. 전형적 주제 정서 감정으로 처리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러워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죄 행수 썩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려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
 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
 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
 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엉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
 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
 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A]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
 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 커녕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
 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
 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
 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열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송송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
 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
 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 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곤 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개'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역시, 배운대로 고전 적용입니다.

수업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전은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문학 - 감정 정보처리 - 공감 능력 측정

이과든 문과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수적 능력

(가)

청평사의 나그네	인물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긍정+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알 떨어지네	긍정+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긍정+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긍정+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긍정+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제목, 제재 : 유객... 아마도 나그네?
역시, 나그네..
...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에 있으면서, 좋은 정서만...
주제는?
자연 친화 정도로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속적 가치 X 자연에서 오는 가치 = 탈속적 가치

출제 될 수 있는 특이한 구조
촉발 부분 인물 세팅

(나) 인물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자연친화/안분지족 통일시

관직,권력,세속적가치 vs 자연,탈속 지향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훌쩍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재벌 안 부럽다 = 탈속적 가치 우선

아마도 관직... 던지고, 자연으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체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매인 새 보다 훨씬 시원 = 자연친화,탈속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께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그럼 여긴 방향이 아닌, 자연 심취!

취 행수 썩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그렇게 자연 심취. 풍류. 편하게 살자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아마도 고사. 인물 세팅...

세속 vs 탈속 = 탈속 지향

“청수(淸瘦)한 한 쪽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생활 = 생계 = 어부 vs

취미 어부... 자연친화. 운치. 자유. 고고. 청고. 좋네유...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고기 잡으려 낚대 들이는 장면 묘사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 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찌를 멀리 던지고 기다림...

그런데? 찌가 움직이네? 오 고기인가? = 기대감!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대어인가? 기대감!!!

[A]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대어인가? 기대감!!!!. 방게네?! 개구리네?!!!

하.. 실망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생각해보니까 개뻥치네?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백침을 멀리 하기 위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프로불편러가 되어서 급발진 할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렉카 유튜버들이며...

죄다 속만 뒤집는 세상 소식들...

아오 킹받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세상사 멀리하고 은거하는 예전 사람들 비판했는데

내 입장되고 보니까 이해는 되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주제 중심 접근 하라 말씀 드렸습니다.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교훈? (가)와 (나)가?

그냥 자연친화 같으니... 일단 out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삶의 태도...자연친화... 맞네.

설의? 이걸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개념어 : 설의법 : 의문형으로 표현 = 어미 확인 = 문장 or 행의 끝 부분 확인.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심리변화가? (가)와 (나)가?

역시 out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내적갈등이요? (가)와 (나)가?

역시 out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도 자연친화...맞는데?

계절.. 그러네! 봄, 가을... 정답인데?!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주제. 정서 중심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지향... 그랬었고 지명이 있었나?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친화. 탈속. 맞췌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만족은 맞는데... 왜 자연을 연민해?

자연친화. 만족인데! 역시 정답!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자연친화. 정답!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세속, 생계 낚시 vs 취미 낚시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낚시 몰입 장면 있는 것 같구요

도구와 관계? 나중에 발췌독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찌 던지고, 기다리고, 찌 움직이고, 기대! 맞네!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람 나중에 개박쳤는디?

발췌독... 이게 정답이네!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췌. 옛 사람과 공감...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 고자 하는 인물이다.

특이한 전개방식

촉발부분 인물 세팅 = 비슷한 고사의 인물!

정답!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 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 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장면... 기대했는데...방게...개구리... 소노 = 실망감
[B]장면... 생각해보니 개빡치네! 대노!!!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A]정서. 순서대로

경이감 - 무력감 - 실망감 - 상실감 - 혐오감
실망감. 정답 3번!

해설 강의 꼭 참조 바랍니다!

조어삼매 해설을 글로 보지 말고 수업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아마 문학 작품을 수능에서 어떻게 읽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정적 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신선 - 지향. 있고

근심? 아...이면 전제...

그러면 지향하는 곳을 대비적으로 더 효과적 표현

- ② (나)의 '낮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아니 어디에 방향이 있냐구!

이 사람은 자연친화. 탈속 지향을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정답!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묘사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Special 비평교육

17학년도부터 출제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오답률 top1에도 등극하는 유형으로
비평에 대한 정보 처리 역량이 없는 경우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배운대로

1. 작품 비평 > 작품 > 보기 순으로
작품 해석 준거의 우선 순위를 두며

2. 문학 개념어를 적용

3. 독서 구조 처리

다음 지문 역시

- 1. 지문 정보 처리에 가능한 기록을 50~100% 염두하고, 50~60% 정도의 정보 처리시의 랩타임
- 2. 필요시 구조도 랩타임
- 3. 문제 풀이 및 특정 선지의 랩타임 구분
- 4. 시간 감각을 익히면서 마지막 리허설 대비 바랍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21~9평)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 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온는다 한다 마는

㉡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찻느물 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곶 몫(勺)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니른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버라 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너도 물내 묘하호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 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리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호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 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시 도다 <제5수>

강산이 묘타 호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호야 도 희울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 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

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늑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늑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회 곶 몫'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 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38~42] 다음 **기발 무언을 간구, 울었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9평)
이면적 정보

(가) **뭔가 찾는 부정적 상황같은!**

의미론 지문과 역임 ①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1.주관 2.객관
=> 거리감 가까움

3.사회적 의미
=> 거리감 멀어짐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 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1수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산, 물, 사이에
바위 아래 띠집...

남들 비웃구나

그래도 내분 = 안분지족

표면적 정보

이면적 정보

전형적 주제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는다 한다 마는

① 어리고 하얌의 뜻의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 을 알마초 머은 후(後)에

바회 굿 몫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2수 유지

대단한 음식 아니고요

보리밥. 풋늬물.

자연친화

바라는 일 없다 = 안분지족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 보니

모리한 **남이 오다** **반가움** 이리하라

3수 유지

잔 들고 산 본다

반갑다

좋다 = 자연친화

말습도 우음도 아너도 몰내 **도하호노** 라 <제3수>

4수 심화

삼공 보다 낮다

만승 이만하라 = 자부심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5수 유지

인간 만사 안 말기고

강산을 지키라 하시라

= 자연친화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를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훈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 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하시 도다 <제5수>

5수 집약

결국은 임금님 덕이유

아주 뻥한 주제...

강산이 도타 훈들 내 분(分)으로 누업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쁘리 갑고자 **흐야** 도 **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러니**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평가원의 설계

수필...비문학 성격 => 비문학적 구조 처리

1단락 주제+구조

있는 곳	산림 (자연)	시정 (속세)
마음 두는 곳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
은거 (자연)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명리 (속세=세속가치)		

2단락 주제+구조

있는 곳	산림 (자연)	시정 (속세)
마음 두는 곳	3~4%	0~1%
은거 (자연)	50%	100%
명리 (속세=세속가치)		

= 내가 상위 0~1%대
= 내가 최고
= flex해 자랑해 다 해 = 자부심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고전이니까 겸손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구조 + 설계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뭔가 평가원의 설계가 지문에 함축되어 있음이 보여야 함

발췌독 세부내용일치 = 정답확률 낮고, 가치 없음

발췌독을 해도 **설계를 봐야함**

그렇다면, 역시나 **구조**

애! 공간. 둘 다, 산수 = 강산인데

1수의 산수는 내가 사는 곳 = 경험적 구체적 공간

6수의 강산은 포괄적인 자연의 개념 = 추상적 의미

정답 1번.

추가설명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의 개념어 학습을 하면

은유법 : 매개어 없이 원관념 => 보조관념으로 표현

구조 : A는 B이다

예시 : 당신은 호수다.

해설 : 당신을 호수에 비유.

이런 초중등 잼민이 수준의 학습

고등, 고3 수준이 되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로서의 자연과

추상화되어, 탈속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구분이 생겨야 함

평가원은 이렇게 시중의 중등 잼민이 수준의 문학 개념 학습차원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

이는,

당연한 것이

은유법 알아서 어따 써먹으실 거?

진짜로..

하지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표현 = 시의 3요소 중 형상화

와 같이 core한 개념을 다루고

이는

구체

추상

과 같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한 차원 높여주는 사고 방식임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설계

그래서 2번 선지도 바로, 구체성, 추상성으로 엮음

하지만 2수 3수 모두 화자가 시각적으로 보는, 즉, 형상화된, 즉

구체적 공간임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설계

개념어만 있네?

정답확률 13% 미만. 이미 1번 선지인데?

시간 남아 돌면 확인

BAE T 개념

단,

설의법 = 답정너인데 물어 보는 표현법

형식 : 의문 어미

영탄법 = 감탄/감정 표출하는 표현법

형식 : 감탄 어미

따라서, 영탄법은 설의법을 포함하는 개념임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설계

주제.

현재 긍정...은 하겠지 자연친화니까

역사 부정을 왜 해 자연친화 좋아서 난리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설계

역시 추상, 구체화 형상화 개념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늚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늚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②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 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설계

비평문은 페이크고

결국 주제임

따라서, 1수 남들과 비교 대조 => 나는 자연 좋아. 니넨 속세

당연히, 대립, 거리감

1~2번 선지 모두 동일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설계

일단 오답 오지게 의심

3수의 주제는 그만큼 자연이 좋다는 것이지

님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감정이 아님

예를들면, 나는 피자보다 치킨이 좋아.

피자 평생 안 드실 분???

나는 안창살 보다는 치마살이 좋아

평상 안창살 안 드실 분???

단, 해석의 가능성은 있으니, 4~5선지 비교. 가장 오답 찾기 go

④ '님천'에서의 '한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설계

내용으로만 보니 약간 오답 의심 갔는데 구조 잡고 주제 보니 클리어

이 사람은 자연친화, 속세멀리인데 자기와 외부세계가 가깝다고? 개소리?라고 했으나 선지 구조 잡아봅시다.

화자와 님천이 가깝다 그래서 자기(화자)와 외부세계(님천)이 가깝다 높은 확률로 가능하지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설계

4번 선지 이어 보면 그럭 가장 오답 3번으로 확정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계 : 주제 구조 짚서기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설계 : 주제 구조 짚서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상위 0~1%다 자부심인데? 그냥 너무 틀린 선지. 시간 남으니까 나머지 갑시다.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설계 : 구조

표처리. = 유형 분류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중2 잼민이때 그리던 조건부 확률 표그리기

	있는 곳	산림 (자연)	시정 (속세)
미음 두는 곳			
은거 (자연)		3~4% 큰 즐거움	0~1% 작은 즐거움
명리 (속세=세속가치)		50% 큰 부끄러움	100% 작은 부끄러움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응. 구조도. 표 보세요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 상위0~1% 자부심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계 : 구조 + 주제 = 공통점

둘 다 자기가 잘나긴 했는데 (가) 하암 = 겸손표현, (나) 내가 모자라 = 겸손표현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쌘소리 어그로 끌리지 말고 언능 주제 찾읍시다.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역시 쌘소리 어그로 끌리지 말고 언능 주제 찾읍시다.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아니... 내가 겸손하고, 나만 그래... 이게 일반화? 단어 뜻 좀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인용이... 구조에 있던가? 중요하지 않거나 없으니 처리 안 했겠지? 일단 정답 확률 낮으니 스킵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 주제 + 구조(표현법)

둘 다 자기가 잘나긴 했는데 (가) 하암 = 겸손표현, (나) 내가 모자라 = 겸손표현 => 겸손표현 + 자부심 짚끔 정답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설계 : 구조 + 주제

특히, 틀린 선지 찾는 거니까 대부분 그럴 듯 이상한 놈 하나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잡았다! 남들하고 다르게 나만 다른데, 대다수? 정답!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9평)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꿇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다시: 시기가 많음.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슬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9평)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율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소나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둘러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굶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축발
전형적임!
 공후=관직
 배필=결혼상대
 군자호구=군자
 유교훈남
 장안유협
 =양아치를 만나네
 삼오=15 이팔=16
 조선시대 조흔
 연광=아마도 시간이
 면목가증=>외국가...
 내얼굴... 에후
 누가 나 좋겠냐

유지/심화
 매화...절개?
 아님 시간?
 시간...계절 흐름
 봄의 경물도
 그저 그래
 눈물
 죽지도 못해
 약기 노래
 나 좀 하지
 소싯적 걸그룹 수준

집약
 근데 듣는 사람도 없어
 에고...
 간장끓기는 괴로움
 잠이나 자야지
 잠도 못자게
 짐승들이 깨우네
 = 불면증까지...
주제
 뻘하죠 조선시대 조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방안에서 외로운 여성화자

주제흐름
 흔들흔덕 흔들흔들
 의태법...
 우는게 후루룩 비쪽
 주걱들한테 해봐
 애들 웃어...
 아마도 슬픈 상황
 해학/희화화로 표현
 자학 개그 비슷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지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설계 = 주제+구조 주제 설계 있었음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설계 = 주제+구조 계절 전개 방식도 주제와 관련있게 있었지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설계 = 주제+구조 특이 전개방식 의태법 있죠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설계 = 주제+구조 특이 전개방식 계절은 맞는데... 주제 정답이네. 화자 처지가 계속 혼자있는데? 정답!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계 = 공통 표현의 차이점 = 구조
 ㉠은, 내 결혼상대가 저런 양아치래니... 꿈이길...
 ㉡은, 인생 터졌네. 에호. 꿈이나 꾸자...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그냥 씹소리**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주제 => 바로 정답! 끝**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가. 주제 구조

내 인생. 내 남편 양아치. 나 늙어. 시간만 지나... 슬퍼... 엄청 슬퍼...

나. 주제 구조

나 슬퍼... 슬픈데 우는 모습 너무 웃겨... 웃퍼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역시 주제.

교감 거부?

부용장 적막, 누구 귀에 내 노래와 악기 소리가 들리겠어?

=> 혼자인 상황이지

이게 왜 거부라는 정서지?

정답!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배인호 초격차 국어 리허설 ; 심상훈련

여기까지입니다.

화작과 언매는 원론서를 참고해주세요.

파이널 직전 리허설 심상 훈련인만큼

부비 보다는 밀도를 높였고

분량 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수능과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사고 교정이 편한 지문들 위주로 세팅하였고

43주차 출제 예상을 위한 평가원 큰 그림 영상 필기를 바탕으로

원론서 중심의 학습, 수능까지 이어 가시고,

시간감각 유지

멘탈과 체력관리

끝까지 하던 학습 그대로 유지하세요

평가원 교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수능의 조물주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로서

올해 1년을 보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었던 순간들에 당신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삶이 겨워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 소설 수업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당신들을 보며, 다시금 이 길을 선택한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43주차, 법, 경제, 과학기술 생존지식과, 논리-철학 인간에게 하는 우리 선현들의 유산에 감동하는 당신들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지금, 내 전성기

국어교육학자로는 부족함과 창피함이 끝이 없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듯,

저는 대한민국 수능 국어 강사 실력 압도적 1등입니다.

압도적 1등의 수업을 들은 당신은 이미 압도적 1등급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 그 까짓 거 전부 후들겨 패고 오세요.

당신의 뒤에는 든든한 제가 있습니다.

One door closes, another door opens.

See you.

수능 끝. 성인 시작. 시대정신 속의 자아 성찰.

매 순간의 의미를 곱씹으며 잘 살아내시길.

마지막으로, 교수님. 평가원에 임용되시기 직전 제게 주셨던 용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놓지 마세요”

네. 많이 걱정했습니다. 온 세상이 돌을 던질까 봐.

아니, 무관심 속에 생명이 끝이 날까 싶어.

하지만,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미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전부는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배인호 초격차 국어



지금의 너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 뉴턴, 구글 스킨라. 그리고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
- 자신있게 가라. 너는 이미 마동석이고, 이미 백분위 100이고, 1등급이다.

